



## 청년미래포럼/도시환경분과 토론회 계획(안)

○ **목 적** : 가로수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효과 완화, 대기오염정화, 소음차단, 방풍, 방설, 방사, 방조, 방제등의 효과등 공익적 기능이 원활히 발휘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이에 충주시 도심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로 열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수거 대책을 수립하여 도심속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주 제 : 도심속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개선 대책

- **주 관** : 청년미래포럼/도시환경분과
- **일 시** : 2020. 7/31(금) 14:00 ~
- **장 소** : 호암공원생태전시관
- **주제발표** : 한상범 - 동진기술단 대표
- **좌 장** : 백한기 -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 **패 널** : 홍진옥 - 충주시의회 의원  
윤주학 - 충주시청 산림녹지과 팀장  
최상두 - 청년미래포럼 위원장  
김범수 -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교수  
이제룡 -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운영지원 팀장

### □ 세부프로그램

| 시 간         | 진행순서                                                                                                                                               |
|-------------|----------------------------------------------------------------------------------------------------------------------------------------------------|
| 13:3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코로나19 대비 철저)</li> <li>● 국민의례</li> <li>● 인사말</li> </ul>                                                 |
| 14:00~15: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규룡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협의회장</li> <li>● 주제발표(20분)/ 토론회 진행(60분)</li> <li>● 질의응답(10분)</li> <li>● 기념촬영</li> </ul> |

## - 청년미래포럼/ 도시환경분과 -

## 도심속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개선 토론회

**일 시** | 2020. 7/31(금) 14:00 ~  
**장 소** |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주최·주관**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미래포럼/도시환경분과

## 충주 도시의 은행나무 가로수

### 한 상 범

가로수는 도심 인공구조물 속에서 도심공원과 더불어 생명이 있는 녹지 시설로 중요한 도시시설물의 하나 이다. 인류가 문명을 형성하면서 도심이 번창하고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하면서 도심과 도로를 보호하고, 도로를 통해 도심을 오가는 이동자들을 위한 이정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전해 진다.

가로수의 역사적 기록은 BC 14세기경 이집트의 무화과나무, BC 5세기경 그리스의 버즘나무 식재기록이 있으며, BC 5세기 경 중국에서도 열수(列樹)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의 『경국대전』에는 ‘도성 내의 도로의 너비를 규정하고, 지방도로에는 10리 거리마다 소후(小候), 30리 거리마다 대후(大候)를 세운다’고 했는데, 후에는 나무를 심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고, 1405년(태종 5년 / 서울의 가로변에 나무 식재), 1441년(세종 23년 / 이정표 수목 식재), 1453년(단종 1년 / 서울 외각 도로 가로수 식재)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문명의 발전을 통해 번창한 도심에 수목을 식재하여 조화를 이루려 했던 것은 동서고금 모두 활용했던 도시계획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주시는 2018년 말 기준 18수종 49,598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성내, 충인동 일대 은행나무가로수는 1979년 도심 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식재한 것이다.

가로수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분진·소음 등을 차단하며, 푸른 녹색의 일으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성장으로 인해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상가 영업적 손실에 대한 민원,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 호소, 열매의 낙파를 통한 악취 등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 한 상 범

동진기술단 대표

또한 도심내 전선 및 통신선의 피해, 지하에 매설된 각종 배관의 설치와 정비시 발생하는 민원 등이 가로수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도심 내 상인들에게는 단점으로 비추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관리적 측면에서 가로수는 도심내 제한된 생육공간에 식재되어 충분한 토양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의 생육이 불리하며, 전선·통신선 및 영업장소의 입간판 가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한 가지치기 실시와 지하 각종 배관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공사로 인해 뿌리 부분의 지나친 전경이 발생하고, 포장된 도로로 인해 뿌리호흡이 어렵고, 충분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뿌리부분이 썩어가는 등 원활한 생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으며, 이로 인해 약해진 수세는 각종 병해충에 저항성이 낮아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충주시 도심(성내충인동 일대)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앞서 열거한 가로수의 모든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가로수길이다. 발생한 민원 대부분은 은행나무 가로수 잎과 가지로 인해 상가 간판이 가려지고, 이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역 상인회의 민원이 대부분이며, 불리한 생육환경으로 인한 부실한 수형상태 및 관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로수의 제거, 존치』의 소모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이 신 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위축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지역 상인들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요구했던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도심 가로수 제거”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새로이 조성되어 반영하는 현재의 도심상가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구 도심의 가로수 정비 및 관리 방안은 충주시 도심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방향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 도심 은행나무 가로수의 조성 상황을 보면서 충주시 가로수 조성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5 -

충주시민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무이다. 충주시에는 가로수는 각각이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도로변에서 생육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해 각각 가로수의 식재년도 수종, 가로수의 역할을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로수를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은 더욱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예산이 부족하다.

가로수 조성 계획의 시작은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이라 생각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택지 등 각종 시설용지와 공원, 도로 등을 결정하는데 이때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분양가가 상승되어 사업성이 불리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용지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때 수목 식재를 위한 가로수의 공간은 논의 대상에서 법률적인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게 되는 형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파감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로수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통한 가지치기 및 각종 주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이로인해 가로수가 단순한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도심 품격을 높이는 중요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가로수 조성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각각의 문제가 아닌 모두 사안이 연계된 문제들로 하나만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좀 더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충주시 녹지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은 단순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아닌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의견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 7 -

첫째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생육공간이 부족하다.

수목은 자라는 식물로 상당기간 부피생장과 길이생장을 지속한다. 지하부는 수목을 물리적으로 지지해 주고 수분 및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생육하는 공간이며, 지상부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하여 수목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 가로수 지하부는 도로포장, 각종 배수관, 가스배관 등이 매설된 공간에서 수목의 뿌리가 자라게 되고, 시설물 관리자들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목의 뿌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뿌리 일부를 제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뿌리는 수목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의 흡수, 뿌리 호흡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활한 배수 또한 어려워 수목 성장에 불리하다. 또한 지상부는 전선주, 전선, 통신선이 3~4m 지상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길이 생장과 부피 성장을 수목에 의해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상가의 간판을 가리게 되어 상가 영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며,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가지치기 작업이 수반되어 수목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도심에서 가로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도로 폭을 조정하여 변화이 필요한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계획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각종 시설물의 변경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의 부족하다.

가로수를 생각할 때 도로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을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한 도로의 부속물은 제거한 후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면 되지만, 가로수는 일정한 크기까지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충주 도심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1979년 식재되어 수령 40년 이상된 수목이다. 도심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비록 생육 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해 충분히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40여년의 세월을 충주 도심에서 수많은

- 6 -

충주시는 지난해에 『충주시 도시림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공원 및 가로수, 녹지대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철금·금릉동 녹지대 변경 조성과 도심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등 관리 방법이 눈에 띄게 변화된 충주시의 녹지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충주시 녹지정책의 성과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한 좋은 사례로 이를 추진한 충주시 산림녹지과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주재 발표를 마친다.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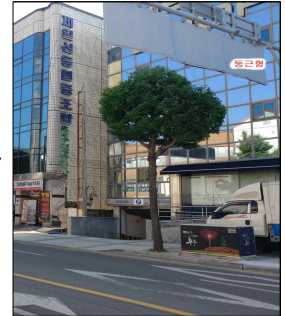
## 시내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전정 추진계획

### 1. 사업개요

- 대 상 지 : 시내권 주요대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 사 업 량 : 약1,546주(은행나무)
  - 사업기간 : 2020. 4. ~ 11월중(착공일로부터 240일)
  - 사업방법 : 전지전정 1회, 유지관리(맹아제거2회, 가지정리 1회)
  - 사 업 비 : 금300,000천원
  - 수행관리 : 기존 원추형 ⇒ 둥근형, 원추형, 자연형 구분 시행
    - 둥근형 : 시범구간(문화사거리-제2로타리, 충주역-시내버스삼거리), 확대구간(사과나무사거리-오희사거리, 제2로타리-호암사거리, 부민삼거리-삼원사거리, 국민은행-금제공원)
    - 원추형 : 기존 가로수 수행유지(고압선로 선하지 가로수)
    - 자연형 : 고압선로가 없는 구간 자연형유지, 전지전정 미 실시 (시설관리공단, 국원고, 삼원초, 교육청, 법원앞 구간)
- ※ 수행별 전지전정 예시



< 기존 수행 >



< 둥근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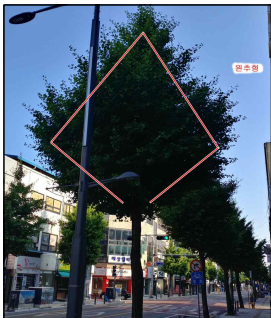
## 토론 1

윤 주 학

충주시청 산림녹지과 팀장

- 9 -

- 10 -



< 원추형 >



< 자연형 : 전지 미 실시 >

< 년중 상시 가로수 관리 >

·6월 10일경 둥근형, 원추형으로 수행전정 1회 시행  
 ·4월말, 8월말 맹아제거 2회 시행(지표면에서 역지까지 세순(옴) 제거)  
 ·10월말 가지정리 1회 시행(역지부터 1m까지 잔가지 모두 제거)

### 2. 사업추진의 문제점

- 기존 원추형 가로수는 생장휴지기(1월-3월, 새순이 자라기전) 전지전정을 시행 하였으나, 2019년 6월 시범구간인 제1로타리 중심도로와 충주역앞을 둥근 수행으로 변경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확대 요구가 있어, 주요대로변인 사과나무사거리-오희사거리와 구도심 도로변으로 확대하여 둥근형으로 변경 상시 관리를 시행코자 하나, **사업량이 많아 단 기간내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음.**
- 대상지 모두 시내 대로변으로 주차장 차량 및 유동 차량이 많아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차량이동 통제와 전정 유지관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11 -

### 3. 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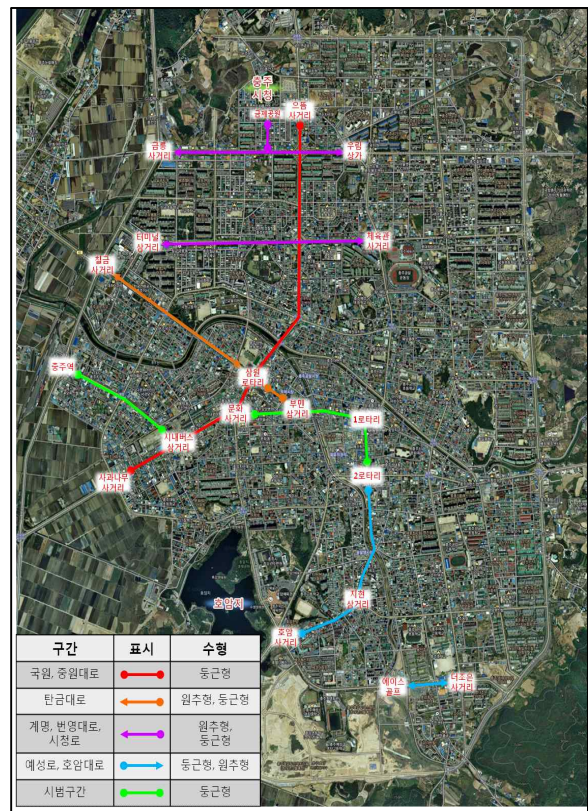
- 충주역앞과 제1로타리 중심도로 가로수는 시범적 수행변경 구간 으로 관리 업체가 교체될시 대표 모범 수행의 롤모델이 완성되지 않아 향후 우리시 가로수 전지방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발주 추진(주요대로변 4개권역/ 1,274주, 257,000천원)
  - 국원, 중원대로 가로수 전지전정 및 유지관리 / 436주, 88,000천원
  - 계명, 변영대로 가로수 전지전정 및 유지관리 / 420주, 84,000천원
  - 예성로, 호암대로 가로수 전지전정 및 유지관리 / 245주, 50,000천원
  - 탄금대로 가로수 전지전정 및 유지관리 / 173주, 35,000천원
- 시범구간(시내중심도로, 충주역앞 272주) 가로수 관리사업 별도 추진

### 4. 수량조사

| 순번 | 사 업 구 간 |         |        | 수 량<br>(B21-30) | 수형  | 비고   |
|----|---------|---------|--------|-----------------|-----|------|
| 1  | 국원대로    | 문화사거리   | 오희사거리  | 318             | 둥근형 |      |
|    | 중원대로    | 사과나무사거리 | 문화사거리  | 118             | 둥근형 |      |
|    | 소 계     |         |        | 436             |     |      |
| 2  | 계명대로    | 터미널삼거리  | 체육관사거리 | 193             | 원추형 |      |
|    | 변영대로    | 금룡사거리   | 우림아파트  | 204             | 원추형 |      |
|    | 시정로     | 국민은행    | 금제공원   | 23              | 둥근형 |      |
| 3  | 예성로     | 제2로타리   | 호암사거리  | 178             | 둥근형 |      |
|    | 호암대로    | 에이스골프   | 더조은사거리 | 67              | 원추형 |      |
|    | 소 계     |         |        | 245             |     |      |
| 4  | 탄금대로    | 칠금사거리   | 삼원사거리  | 121             | 원추형 |      |
|    |         | 삼원사거리   | 부민삼거리  | 52              | 둥근형 |      |
|    | 소 계     |         |        | 173             |     |      |
| 5  | 시내중심    | 문화사거리   | 제2로타리  | 140             | 둥근형 | 시범구역 |
|    | 충주역앞    | 충주역     | 신한국관   | 132             | 둥근형 |      |
|    | 소 계     |         |        | 272             |     |      |
| 계  |         |         |        | 1,546           |     |      |

- 12 -

# 5. 위 치 도



충주역~ 시내버스터미널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작업

<작업전>



<작업 후>

이마트~ 제2로타리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작업

<작업전>



<작업 후>

## 토론 2

이 제 룡  
제)수원그린트러스트 운영지원팀장

토론 3

씨앗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인 과육에는 빌로볼과 은행산 등의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악취의 원인이다.

탄소로 이루어진 은행산이 땅에 떨어져 외부의 껍질이 터지면 부패하면서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 성분은 독성도 함유하고 있는데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독성 때문에 초식동물이나 새들도 은행은 중독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 냄새가 빌레의 침입도 막아줘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잎에는 플라보노이드 터페노이드 비로마라이드 등 항균성 성분들이 포함되어 병충해가 거의 없다.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병충해 예방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소, 아황산가스 등을 흡수해 이런 성분을 정화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한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중금속 오염까지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로수이다.

또한 은행열매를 먹는 것은 사람뿐이고, 그렇기에 은행나무는 사람과 가까이에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 수 있다.

가을철 노란 단풍이 아름답지만 암나무에서 열리는 은행열매로 인한 거리 악취와 오염 문제가 매년 가을철 반복되고 있다.

최 상 두  
청년미래포럼 위원장

- 대 책 -

- 1.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 - 암나무 수나무 구분하여, 수나무만 골라 심는 방법을 통해 가로수 은행 열매의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시 영등포구 등 11개 구의 가로수 교체 사업)
  - 가지가 수직으로 뻗어나가면 수컷이고 반대로 가지를 수평으로 최대한 넓게 퍼뜨리는 것은 암컷이다
  - 수컷 은행나무는 최대한 꽃가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려 하고, 암컷 은행나무는 마찬가지로 수컷의 꽃가루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표면적을 넓히는 형태로 가지를 퍼트린다.
- 2. 은행나무 열매 조기 수확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정화기능도 탁월한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낙과시기에 앞서 조기 수확으로 열매수확기 (원주) 진동수확기 (인천) 은행나무에 진동을 전달해 열매를 떨어뜨리는 기기 진동수확기 (대전)
- 3. 은행나무 열매 수거기  
은행 열매 수집망 설치 (수원) -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24곳에 설치해 민원을 크게 줄였다.  
은행 수거망 설치 (안산)  
은행 수거망 시범사업 48그룹 (고양)

- 기타 내용 -

은행나무 잎과 열매에는 해충이 싫어하는 빌로볼(Bilobol)과 은행산 (Ginkgoic Acid) 성분이 있어 살충 살균 효과를 내는 친환경적인 천연살충제로 활용된다. (안산시 천연살충제 활용)

(경북 상주 - 고추밭에 살포한 결과 탄저병과 역병 진딧물 제거를 완전히 방제함)

공기청정기에 은행잎 추출물을 활용해 항균필터를 만들어서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인기를 끌었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함부로 채집하는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되고 은행나무와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처벌받게 된다.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재산에 해당)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수집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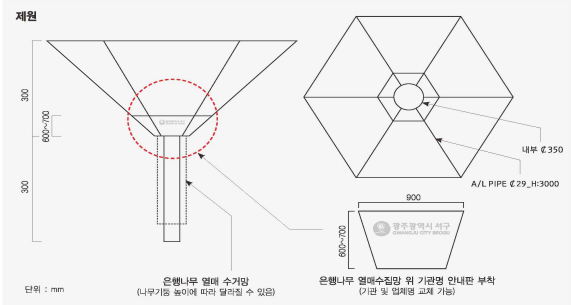
경제성

설치및  
철거용이

열매  
수거용이

미관  
개선

**시범설치(광주광역시 등구)**  
· 살가 근교에 설치하여 신발에 묻어 살가 내부로 유입되는 은행 열매 냄새로부터 민원 해결  
· 구청 미화원의 원활한 수거로 민원발생 요인 미연에 방지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제고



## 지자체는 지금 은행나무 열매와의 전쟁

청주시, 은행나무 악취 줄이기 방안 (충청매일 2019.3.13)

부천시, 가로수 은행나무 잎→수 교체...악취 해소 (NSP 통신 2019.5.1)

안양시, '악취 예방' 은행나무 열매 조기 수확 (NEWSIS 2019.5.29)

'도심 악취 주범' 은행 열매... '은행지뢰' 피한다 (MoneyS 2019.5.30)

중구, 조기 채취로 은행 악취민원 선제적 해소 (내외일보 2018.9.24)



- 21 -

## 은행나무잎 & 열매수거시스템 시공사례



대전 서구청



전주시청

- 22 -

## 도심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 도심권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 전정을 통해 본 충주시 녹지정책

충주시의회 의원 홍진욱(교육학박사)

### 토론 4

#### □ 충주시 가로수 현황

- 은행나무 뿔나무 등 18종 49,598본
- 은행나무 14,520본(전체 30%)

(단위 : 본)

| 노선<br>구분 | 계      | 은행<br>나무 | 산뿔<br>나무 | 인뿔<br>나무 | 단뿔<br>나무 | 느릅<br>나무 | 기타    |
|----------|--------|----------|----------|----------|----------|----------|-------|
| 계        | 49,598 | 14,520   | 18,716   | 5,714    | 1,854    | 1,414    | 7,380 |
| 국 도      | 2,284  | 1,293    | 779      | 0        | 0        | 212      | 0     |
| 지방도      | 11,942 | 2,565    | 6,618    | 1,091    | 57       | 174      | 1,437 |
| 시 도      | 35,372 | 10,662   | 11,319   | 4,623    | 1,797    | 1,028    | 5,943 |

#### □ 가로수 민원사례

- 상업시설 간판가림, 도로표지판 가림, 수형불량, 열매·뿌리 등에 의한 보행환경 악화 등 야기 불편초래
- ※ 민원 대부분 상가민원이 차지하고 있음.

#### □ 도심권 노거수 가로수 제거에 따른 문제점

- 가로수는 도시 내 녹지축 형성, 미관향상, 소음차단, 녹음제공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고 도시공해(SO<sub>2</sub>, NO<sub>2</sub>) 및 분진을 흡착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 규정

홍진욱  
충주시의회 의원

- 23 -

- 24 -

- 가로수 제거는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적 기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가로수 제거 사례

- ① 교원알림통(성남교교 도로본) 알레르기 민원으로 108주 가로서 제거 후 환경단체(기자), 주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 받음(2007년)  
⇒ 가로경관 및 녹음제공 제식제 요구(화분 반출식제, 2008년)
- ② 춘천시 금강로(디지털거리) 버클루나 버충충에 인한 부패로 쓰러져 교통사고 발생 주민들의 서 청구 후 70주 제거(2014년)  
⇒ 민원요구 현재 제수나무 식재관리(2016년)

□ 도심권 가로수 제거민원 대안

- 1안) 기존 가로수 존치 수형조절
  - ⇒ 전선 지중화에 따른 수고를 높게 키워 가로경관 조성
- 2안) 시내 중심부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
  - ⇒ 수종 갱신
- 3안) 가로수 제거 또는 화분형태 식재
  - ⇒ 민원발생 소지다분

## □ 가로수 수형전지 의견

- 가로수는 도시 내 중심 녹지축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운전자 심리적 안정 제공, 대기오염 저감, 열섬현상 완화, 보행자 녹움을 제공하는 등 가로수는 반드시 필요함.

⇒ 제1안 대안으로 기존 노거수 가로수는 지역의 역사이며 오랜 세월 동안 자리잡은 풍경으로 수형조절과 전지작업으로 가로경관 개선과 민원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로수는 시멘트 건물과 삭막한 도로에 단비와 같은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계절 열섬현상 등을 방지해 주는 기능수행

- 25 -

⇒ 충주시의 녹지정책도 아름다운 경관개선을 위한 수형전정 도입과 녹색  
섬터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시민이 함께하는 바람길숲 조성 필요

## □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 전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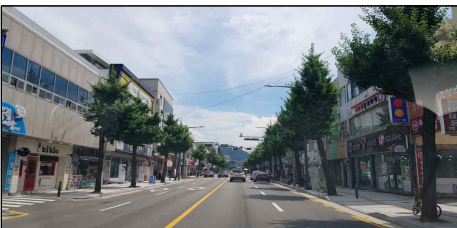
- 충주시는 지난해에 『충주시 도시림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공원 및 가로수, 녹지대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음. 특히 칠금·금릉동 녹지대 변경 조성과 도심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등 관리 방법은 변화된 충주시의 녹지정책을 반영한 것임.
- 제1,2로타리 구간 도심지 지중화에 따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존치여부 시민여론 수렴결과 존치 후 가로수 수고를 높게 수행조절 가로경관 조성 의견이 77%였음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나무 가로수를 우산(버섯)모형 수형으로 가지치기한 관리 방법은 경관개선과 민원해결을 동시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물로, 새로운 볼거리로 거듭나게 한 효율적인 정책의 좋은 사례임.

첨부 :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전지 사진 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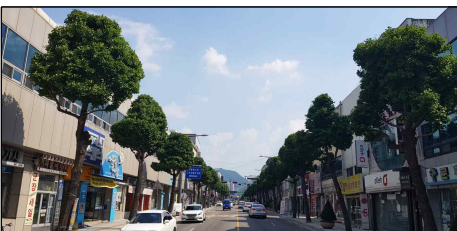
○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전지 사진



가로수 전지 사진 (3년전)



가로수 전지 후 사진 (2년전)



가로수 전지 후 사진 (현재)

□ 메모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28 -

- 27 -